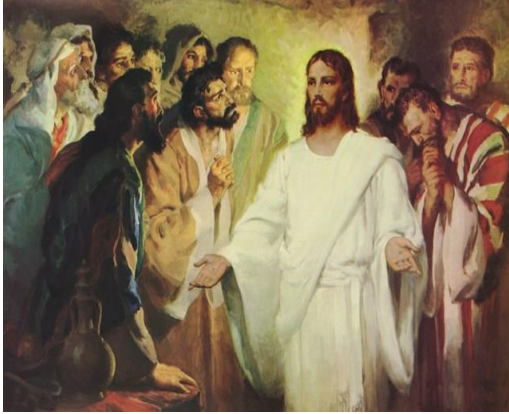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백) 부활 제 6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5월)

#### 복음화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1-2.22-29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기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0-14.22-23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3L -29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영성체송**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영성체 후 묵상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어린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기에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는 도성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 부활 제 6 주일

### ♣ 내 마음 안의 성령 - 광승룡 비오 신부 ♣

요한복음 14 장 26 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인 듯싶다. 바로 성령의 역할이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듯이 상대가 누구이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듣겠지 생각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이나 그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 내 마음 안의 성령을 느껴볼 수 있다.

바로 사도에 따르면, 영적 인격자로서 사람은 자기 안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만난다. 곧 사람은 몸과 영혼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먼저 먹고 숨을 쉬는 몸은 육적인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영혼은 생각하는 정신과 결정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안다. 끝으로 성령은 나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다시 말해서 내 안의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영적인 사람은 이처럼 수덕(修德)의 삶에 관한 지성적 성찰들을 함께 공유하고, 아름다운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누구나 순수하게 믿는 영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보호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요한 14, 26)을 믿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은 각자 마음 안에 성령이 거처하시기에, 특히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인격을 선물 받은 품격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내 마음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영적 인격을 살도록 이끌고 감도하신다. 그 순간 성령은 말씀과 사람도 이해하는 이웃을 만나도록 인도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 안의 성령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몸과 영혼 곧 생각, 정신, 마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몸은 먹고 움직이고 육적 여러 기능들을 수행한다. 운동하고, 음식을 먹는다. 영혼은 정신을 잘 바라보고 생각하게 한다. 마음은 결정하고 선택하며 자유를 누리 알게 한다. 성령께서는 내 영혼 곧 생각, 마음 안에서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 내 마음 안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내 마음 안의 성령께서 늘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이겨내도록 서로 서로 이해하도록 인도하신다.

### | 부활 제 6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령  
한구절



'부활하신 예수님'  
페루지노 작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7).

.....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제 17차 교육 주간 (5월 23-29일) 담화문**

2022년 5월 교육 주간을 맞아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비우 주교님께서 “공동체로서의 학교 회복”이라는 주제로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교육 여정에 교우분들의 동참을 요청하시며 실천 사항들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부모는 가정을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최초이자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정직함, 충실함, 성실함으로 형제애와 공동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애와 공동체성을 몸소 보여 주는 부모의 모범은 최상의 교육 방법이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생업이나 여가 활동을 위하여 소속된 조직 안에 형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신자 교육자들은 수업과 교육 활동, 모범적 삶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다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깨닫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법을 알게 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계 학교는 형제애 가득한 학교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 어두운 학교 교육에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의 책임자와 교사들은 가톨릭 학교가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8항)로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며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증거가 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담화문 전문 링크: <https://cbck.or.kr/Notice/20220412?gb=K1200>

**“공동체로서의 학교 회복”**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1 코린 12,27)



**성령 강림 대축일 (6월 5일) 유래와 의미**

성령 강림 대축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은 본래 밀을 추수하여 그 첫 결실을 하느님께 바치는 감사제를 지내는 축제로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기념하던 축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제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과월절 축제를 지낸 후 50일이 지난 다음 거행했으며 50일 후에 거행되는 축제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비단 신약의 어느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찌기 하느님의 영으로서 창조사업부터 함께 하셨으며(창세 1, 2) 구약의 성조들은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았고, 예언자들 또한 그 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명이 이어지도록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교회에 위로자이시며 협조자이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교우분들께서 봉헌하실 수 있는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문을 공유합니다.

[출처: 성 바실 한인성당: [http://stbasilkorean.org/?mod=document&uid=198&page\\_id=177](http://stbasilkorean.org/?mod=document&uid=198&page_id=177)]

**예비신자 성지순례 (문의: 주정자 루치아)**

일시 : 5월 28일(토)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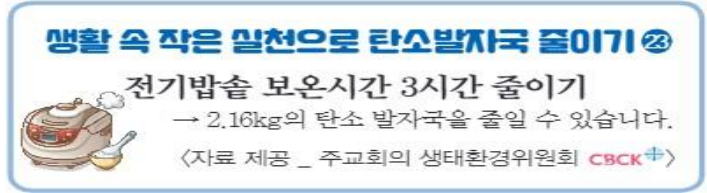
장소 : 자비의 성모성지, 120 Hanging Rock Rd, Sutton Forest, NSW 2577

일정 : 오전 11시 성지미사(영어), 중식, 성지걷기, 묵주기도, 해산(15시)





| 부활 제 6 주일 주간실천 |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중세라이브]

필리핀 빈민가에서 사랑을 피워내는

K-POP 신부님!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황중호 베드로 신부 | 이영준 모이세 신부 | 장경근 안드레아 신부 | 필리핀 요셉의원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꿀팁가이드]

창세기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전체 구원역사의 로드맵이 담겨있는 책

2022년 어머니의 날 기념영상

2022년 5월 6일 금요일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 주일 미사 참례자수

5월 8일	성인 34 아이 8	5월 15일	성인 34 아이 11
-------	------------	--------	-------------

□ 우리들의 정성 (5월 14일(토)~20일(금))

구민식	권묘순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 \$460 (10 가정)			봉헌금 : \$20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5월 22일, 부활 제 6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5월 29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주정자 루치아,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2일) 요한반 → (29일) 마르코반 → (6월 5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29일) 마태오반 → (6월 12일) 요한반

□ 코로나 19 방역수칙

-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 성당 출입 시 손 세정 및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권순주 리타, 남궁윤하 리타(22일), 이국원 필립보 네리(26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우리 공동체 생태보호 체험 학습(5월 21일 토요일)이 잘 준비되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교우분들과 이날 함께 하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